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 02-555-1946 / 010-5235-1946 메일 : snuarta@naver.com 밴드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1 본회소식



신년사

달리는 토끼처럼 일하겠습니다.



2023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 다산, 행복, 지혜의 상징 토끼 해에 꿈이 더욱 피어나고, 하시는 작품과 사업이 원만히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전대미문의 역병으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하던 일을 힘차게 계속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창작의 열기는 더욱 왕성했고, 갈수록 접속률이 높아지는 온라인 전시, 다양한 목적의 오프라인 전시,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서울대미술인 출간, 매월 동문들에게 전달되는 E-News, 재학생 후배들과 탈북인의 자녀들

지원사업 등 어느 것 하나 중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뜨거운 참여와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비남산(壽比南山), 복여동해(福如東海)!

2023 계묘년에 우리 미대 동창회는 달리는 토끼처럼 모든 사업을 민첩하게 추진하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새해에 동문 여러분의 건강이 남산처럼 우뚝하시고,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복과 행운이 동해처럼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1. 새아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장 권 영 걸 세배.

신년인사말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문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들 잘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를 돌아해보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변화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을 대면으로 전환했으며, 다양한 행사들도 대면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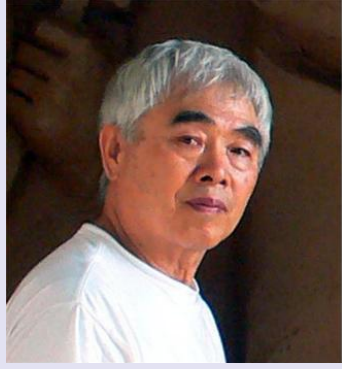
그러나 2년여간의 비대면 온라인방식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방식에서는 '소통'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소통을 한 중심에 둔 미술 분야의 특성상 그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그 지난한 상황 속에서도 동문들께서는 창조의 등불을 밝히

시며 세상과 많은 소통을 하셨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데 다방면으로 힘을 보태셨습니다. 특히 동창회를 중심으로 나눔 전시회를 여시고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시며 베리타스미술상을 제정하여 후학들에게 용기를 주신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학들과 함께하는 특강을 기획하시고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동문회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신에게 엄격하게 일생을 노력하여 모으신 돈을 모교의 발전과 후학들의 교육을 위해 기부하신 동문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교육적 비전을 적극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문들의 격려와 도움은 우리 대학이 세상을 밝혀나갈 창조적인 인재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해 동문 여러분들께서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김성희

최의순(53조소) 고문



계묘년 정월 동문에게

"올해는 특히 건강에 유념하길 기원합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떠나지요.

나와 함께 한 작품들도 퇴색되고 회복되면 하늘이 더 짙푸르고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자중자애, 당신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김신현(58회화) 고문



저는 39년생으로 토끼띠 해를 7번째 맞이합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학교 다닐 때는 물감, 종이, 붓 등 재료를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어느덧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핸드폰 하나로 많은 것이 해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글도 iPad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 눈에 보이고, 공부할 것도 너무나 많고, 지구 끝까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도, 하고 싶은 일에는 꼭 도전하세요.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은 오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심신을 건강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그려 나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점(58회화) 고문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선배님 후배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동창회의 조용한 발전을 위해 뒤에서 수고하시는 권영걸 동창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매월 미술대학동창회 소식지(E-NEWS)를 받아보면서 동문님들의 활발한 작품활동 소식을 알게 되고, 직접 화랑을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하며, 선후배 동문들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로 연결되는 것이 참으로 희망적이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동문 회원님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보람된 나날을 보내시며, 하시고자 하는 크고 작은 소망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검정토끼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경인(60회화) 고문



나는 1960년대 초 회화과에 입학하는 동시에 4·19혁명이 시작되어 격동과 질곡의 시대에서 예술의 실존적 성립과 위상, 의미와 존재 방식을 찾는 난제를 안고 있었다. 또 군용 텐트 기지로 캔버스를 손수 만들어야 하는 열악한 경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정 하나로 버텨야 했다. 감당하기 벅찬 예술의 길이였음에도 때로는 막걸리가 있는 낭만적 아이러니도 있었다. 팔순을 넘긴 요즘에는 붓을 놓지 않음이 오히려 행운이며,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도 든다. 그림에서 얻어진 영혼의 숨소리와 자유는 참으로 소중한 나의 전부가 아니었나 싶다. 지금 미술을 하는 후배들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언젠간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정수(60조소) 고문



간밤에 밤새도록 겨울비가 내리더니, 아침은 안개가 자욱한 것이 한껏 수목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봄이 움트는 소리, 기어이 겨울은 가고 봄이 옵니다. 이렇게 해가 바뀌고, 또 새로운 해가 오고.... 자연은, 세월은, 계속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땅속에선 힘차게 싹을 밀어 올리고, 드디어 새로운 생명과 세상이 열립니다. 처음엔 연약해 보이지만 아주 당차고 싱싱한 싹이 "쏘옥" 새로운 공기를 마실 겁니다. <사람도 자연입니다.> 自然, 예술에는 문이 항상 열려있고, 거칠 것이 없으며 숨길 것이 없습니다. 自然無門, 藝術大道. 친구들이여! 우리도 아주 당차고 새로운, 싱싱한 희망과, 싹을 밀어 올립시다.

손문자(62응미) 고문



올해는 검은 토끼해라고 한다. 어쩐지 펍 예술적 느낌으로 다가온다. 토기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는 어릴 때 듣고 가슴에 간직된 교훈이다. 토기가 될 것인가 거북이가 될 것인가를 순간 고민했던 것 같다. 타고난 성품도 아닌데 거북이 노릇을 하기란 어려워 토기가 되었다 거북이가 되었다 하면서 살아 온 것 같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해 아래 새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토기도 됐다 거북도 됐다 하면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해이다.

송광자(62응미) 고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문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께 신년인사를 드릴 수 있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이 차츰 회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 그간 연락이 뜸했던 동문들과 안부 인사를 전하며, 올해는 함께 모여 함박웃음 지을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대 미대 동문들의 활발한 작품활동과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세계적으로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갈 후배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교의 발전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하시길 바라며 동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춘옥(64회화) 고문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다짐을 하거나 멋진 계획을 세워 봅니다. 한 두 번 하는 작심이 아니지만, 올해는 꼭 실천해 보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년 초에 한 다짐이나 계획 자체를 잊고 있는 자신을 보고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그런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도 또, 새해가 되면 무언가를 다짐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주변이나 작금의 세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서로 다르듯, 식물의 잎과 뿌리가 다르면서 스스로를 키워가듯,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포용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동문들도 아름다운 신뢰를 구축하여 함께 나아가는 더욱 따뜻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승희(65응미) 고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 한울타리에서 만나 각자의 미술관을 나누면서 어느덧 반세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들의 창작활동은 밝은 빛과, 힘이되어,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문화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르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작은힘들이 모여 큰일을 이루듯이, 계묘년 새해에도, 동문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본회소식

한효니초대전 개최

본회는 한현정(한효니/08동양) 동문의 개인전을 오는 2월 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사간동 B갤러리에서 개최한다. 한동문 초대전은 본회가 기획하고 B갤러리 초대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가을 모교에서 열렸던 '한현정과 친구들' 전시를 보고 추진하게된 것이다. '한현정과 친구들' 전시는 뜻하지 않은 암투병의 힘든 상황에서도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는 한동문을 격려하기 위해 모교 동양화과 교수들과 동문들이 열었던 전시이다. 한편 B갤러리는 본회

가 2011년 서울대미대동창회장상을 수여한 것을 시작으로 인연을 이어온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대표 장부남) 산하 갤러리로서, 지난해 8월 본회가 기획한 동문그룹전 '세렌티피티'를 B갤러리에서 초대전으로 개최한 바 있다.

설날선물 전달

본회(회장 권영걸)는 설날을 앞둔 지난 1월 18일 모교 경비실 및 미화실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본회는 지난 2019년 권영걸 회장 취임 이후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모교 근로(담당)자분들에게 감사선물을 전하고 있다.

모교소식

23학년도 정시모집실기평가 실시



모교(학장 김성희)는 지난 1월 13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모교 신입학생 정시모집 실기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실기평가를 치른 학생들은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와 기회균형특별전형Ⅱ지원자들이었다. 이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모교 52동 건물에서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치뤄졌다. 한편 이번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발표는 오는 2월 3일 오후 6시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모교는 지난해 12월 31일 원서접수지원을 최종 마감했다. 이번 모교 정시모집 최종 경쟁률은, 공예과는 모집인원 16명 104명 지원해 6.5:1의 경쟁률을 기록해 1단계에서 수능성적으로 5배수 컷을 하므로 24명이 수능성적으로 1단계에서 탈락했다. 디자인과는 22명 모집에 141명 지원해 6.41:1의 경쟁률로 마감하였다. 따라서 1차에서 수능성적으로 31명이 탈락했고 나머지 110명만이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 자격을 갖췄다. 동양화 16명 모집에 79명 지원하여 4.94:1로 마감, 서양화과는 21명 모집에 108명 지원해 5.14:1로 마감, 조소과는 20명 모집에 157명 지원해 7.85:1로 조소과가 가장 높은 지원율로 마감됐었다.

2022년도 2학기 과제전



모교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모교건물 전체에서 2022학년도 2학기 미술대학 과제전이 개최되었다. 1학년 공통 과제전은 지난해 23일부터 25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서양화과 2,3학년 과제전은 그 전인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다. 한편 동양화과 과제전은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조소전공 2, 3학년 과제전은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50동, 51동, 74동에서 개최되었다.

김종영장학금 권에서학생 선정

모교 조소과 2학년 권에서(20조소) 학생이 김종영장학금의 장학생에 선정되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종영미술관에서 열린 제16회 김종영미술상 시상식에서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김종영장학금은 김화련(60조소) 동문이 우성기념사업회에 출연한 장학기금으로 2년마다 모교 조소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우석갤러리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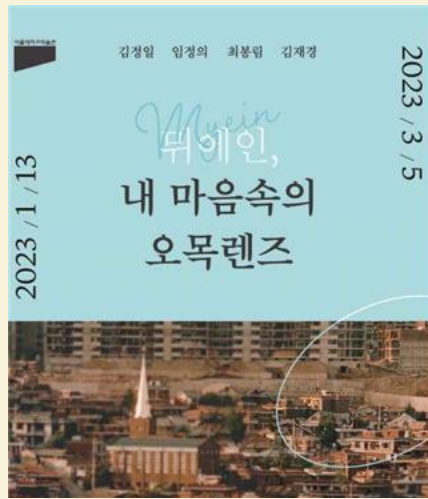
T.P. (Trial Proof)

- 전시기간 2023.1.4.(수) - 1.12.(목), 10:00 - 18:00
- 참여작가 강술 박우진 신동철 우현주 윤예지 이효림
- 전시장소 서울대학교 74동 210호, 2층 우석갤러리
- 후 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서울대미술관소식

위에인, 내 마음속의 오목렌즈

- 전시기간 2023.1.13. - 3.5
- 참여작가 김정일, 김재경, 임정의, 최봉림
- 전시장소 서울대학교미술관 전관
- 주 최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심상용)은 사진전 '위에인, 내 마음속의 오목렌즈'를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서울대학교미술관 전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의 제목 '위에인'은 '신성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로, 잃어버린 기억 혹은 신화라는 뜻으로 쓰인다. 제목처럼 전시역시 1980년대, 90년대, 00년대의 서울 재개발 예정지 곳곳을 담은 사진 196점으로 구성되어 재개발을 누추한 환경이나 저소득층의 주거로만 잘못 인식하는 우리의 렌즈의 배율을 더 높게 해 더 넓은 전망으로 과거를 전망하자는 의미를 전달한다.

신년사



서울대학교 교직원, 학생, 동문,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새벽 어스름을 뚫고 올라오는 태양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 앞날에 밝은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늘 상투적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지난 2022년은 그야말로 이 말이 절실히 와 닿는 시기였습니다. 새

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듯이 반목, 대립하며 좀처럼 통합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전에 보지 못한 조짐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어 금년이 매우 힘든 한 해가 되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다시 떠올리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설마 했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벌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가까운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했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마냥 축하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선진국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들이 해방 후 70년 넘게 따라 배우고자 했던 나라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민주적, 비지성적인 현상들이 가득합니다. 극심한 빈부갈등, 정치적 진영대립, 가짜뉴스의 난무 등으로 인해 새해를 맞는 기분이 희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난세(亂世)'란 아마도 이런 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울대 구성원 여러분! 과거의 난세는 일부 권력자들의 야심이나 지나친 행동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면, 지금의 난세는 '지성의 빈곤', '지성의 타락'이 그 배경에 도사리고 있다면 지나친 얘기일까요? 교육받고 정보를 가진 거대한 대중이 공론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현실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지식·정보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들으려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진영대립, 가짜뉴스의 난무 같은 문제들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흐름에 영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쩡했던 지식인들이 '오디언스(audience)'에 영합하여 곡학아세(曲學阿世)의 궤변을 늘어놓는 일이 흔한 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들이 양 진영의 유력 '스피커(speaker)'가 되어 우리사회를 타락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이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사회에 지성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성인을 양성하기까지는 사회적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지성인은 양쪽 진영에서 비난 받는

일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실만을 취사선택하여 왜곡된 주장을 전파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맞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성의 빈곤', '지성의 타락'이 현 난세의 원인이라는 것은 거꾸로 지성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만 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이기도 합니다. 반지성주의가 난무하고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이 의심받는 지금이야말로, 서울대인들의 진가를 발휘해야 하는 때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국민은 지난 70여 년간 누가 뭐래도 서울대를 믿어주고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묵묵히 뒷바라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서울대를 바라보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믿음과 성원에 서울대가 얼마나 잘 부응했는가는 반성해야 할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서울대와 우리 사회 '지성'의 존재 의의를 증명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초단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빠르고 그 성취의 정도는 너무 대단해 눈이 부시기도 하지만, 그 눈부심 속에 혹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도대체 이 변화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는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은, 특히 서울대는 근시안으로 숨 가쁜 변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우리 미래의 조감도와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내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가 긴 호흡을 갖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우리 서울대는 오랫동안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해왔고, 드디어 작년에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곧 임기를 마치지만, 금년 2월 새로 들어설 집행부는 이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또 과감하게 서울대의 변화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는 새 집행부가 최적의 환경에서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해방 후 80년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서울대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 서도 엄청난 성취를 이뤄왔습니다. 최근 월드컵 16강의 쾌거를 이뤄낸 축구 대표 팀 선수들의 세리머니 문구 중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올 한 해는 분명히 만만치 않은 시간이 되겠지만, 지난 80년 가까이 거센 파도에도 꺾이지 않았듯이, 우리의 힘을, 지성의 힘을 믿고 꿋꿋이 나아갑시다.

여러분 모두와 각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

서울대소식

20개월만에 돌아온 잔디광장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14일 행정관 앞 잔디광장을 공식적으로 개장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20개월간 잔디광장에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잔디광장을 새롭게 조성한 이번 공사는 서울대 내 주차공간 부족과 보행자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진행됐다.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소도 23개가 마련됐다. 또한 차량 진입로가 지하화되어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구분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통행로가 마련됐다. 앞으로 잔디광장에서는 학생 축제와 다양한 학교 행사가 진행되며, 지하 공간에는 휴게음식점이 입점할 예정이다.

동계SNU공헌단 요르단 봉사활동 파견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의 2022 동계 글로벌 SNU공헌단 in 요르단 '샤이닝' 팀이 지난 1월 5일부터 16일까지 요르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SNU공헌단은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국내외 취약 지역으로 향하는 서울대생들의 봉사단이

다. 이번에 신설된 샤이닝팀은 서울대 재학생, 자문단원, 지도교수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샤이닝팀은 요르단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요르단 이르비드 북쪽 람싸지역의 시리아난민 아동들과 보육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음악·미술·체육·위생 교육나눔과 요르단 내 한류열풍을 이어 나가기 위한 문화나눔공연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완료했다.

문화예술원 첫 이벤트 '코드명 논바이너리'



서울대 문화예술원과 다양성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 '코드네임: 논바이너리'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대 68동 제1파워플랜트에서 개최되었다. 앞으로 서울대 문화예술원이 다채로운 창작과 문화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어느 한 쪽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그 사이 그리고 그 너머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함의하는 단어 '논바이너리'를 첫 번째 코드명으로 채택하였다. '코드명: 논바이너리'는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와 세미나, 퍼포먼스, 그리고 댄스 파티로 구성된 이틀간의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쿼어함과 형태적, 장르적 다양성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장으로서 연말을 장식하였다.

신년사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는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44만 서울대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둔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등 국제 정세도 순탄치 않습니다. 금년 우리 경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많은 동문들께서 총동창회에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는 새해에도 '보람 있는 동창회, 유익한 동창회, 즐거운 동창회'를 모토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작년 5월 서울대 가족음악회, 10월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을 비롯해 16차례에 걸쳐 조찬포럼 및 수요특강을 열어 수준 높은 지식과 통찰을 동문들과 나눴습니다. 올해도 이를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대 경제인 동문들의 모임인 관악경제인회도 지난 해 8월 발족하여 모교 발전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새해부터 펼쳐나갈 것입니다. 사회공헌위원회도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과 협력하여 국내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서울대 동문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서울대와 우리 국민 사이에 더 따뜻하고 공고한 유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 가을 개설된 동문 전용 온라인쇼핑몰 'Mall SNUA'를 통해 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여러 유명 호텔, 음식점, 병원 등과 MOU를 맺어 동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평창캠퍼스 일대에 힐링 명소로서 '동문 시니어타운'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동창회' 프로그램으로 바둑대회, 국토문화기행, 등산대회 등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총동창회는 각 단과대 및 특별과정 동창회 그리고 해외지방지부와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작년 2022년 한 해에만 1,300여 명의 장학생에게 3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코비드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단법인 관악회 기부금 규모와 기부자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자 및 기부액 증가는 서울대 동문들의 후배 사랑, 모교 사랑의 뚜렷한 징표이자,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오는 5월 10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인 동문 가족음악회도 기부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서울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문들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나눔과 창조의 정신으로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동창회 역시 44만 동문들의 중지를 모아 모교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오피니언 리더 집단으로서 한층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는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혜와 전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2023년 더욱더 건강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토끼처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김 종 섭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4년만의 신년인사회 개최

서울대총동창회(회장 김종섭)는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총동창회 신년인사회가 열린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4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새해인사를 나눴다. 행사에 앞서 금난새(66작곡) 동문의 지휘로 신년음악회도 열렸다. 이어 김종섭 회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동문께서 총동창회에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보람 있는 동창회, 유익한 동창회, 즐거운 동창회'를 모토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며 신년 동창회 사업과 행사를 소개했다. 또한 1월 31일 퇴임예정인 오세정 총장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서울대의 내일을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하는, 한 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던 시간들이었다"면서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항상 모교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동문 여러분이 계셔서 안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모교의 여정에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고별인사를 전했다. 한편 한덕수(67경제) 국무총리, 이주호(79무역)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정숙(HPM36기) 국회의원 등 공직에 몸담은 동문들이 바쁜 일정 중 참석해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또 "윤석열(79법학) 대통령께서 '동문들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라는 인사 말씀 꼭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해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복을 기원하며 시루떡도 나눴다. 또한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총동창회는 단과대 및 특별과정 동창회 발전에 힘쓰는 동창회장 및 동창회 활성화에 이바지한 단과대학 특별과정 지방지부 전임 동창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2월 수요특강

- 일 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임재준 서울대의대교수국가미래전략원 책임교수
- 주 제 : 코로나-19 팬데믹과 대한민국 : 성찰과 제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가신청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전화불가) 1599-7704,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2만원(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입금시 성명과 입학연도 표기
 - 참가비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2월 등산대회

- 일 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 산 행 지 : 과천서울대공원 둘레길
- 집합장소 : 4호선 대공원역 2번 출구
- 신청방법
 - 참가신청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전화불가) 1599-7704,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2만원(중식 및 기념품 제공)/입금시 성명과 입학연도 표기
 - 참가비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3월 조찬포럼

- 일 시 : 3월 9일(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 강 연 자 : 박진 외교부 장관
- 주 제 : 미정
- 신청방법
 -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전화불가) 1599-7704,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조찬 및 도서 제공)/입금시 성명과 입학연도 표기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6 공지사항

회비납부안내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후원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3.1.1-)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윤(59조소) 본인상

조윤(1940-2023) 동문이 지난 1월 10일 향년 83세로 별세했다. 조동문은 동아공예대전 대상 수상 후 개인전 3회를 비롯해 한울회 파리전·한중남미전·제주문화진흥원작품전과 동아시아미술페스티벌, 서울대 개교 50주년·70주년 특별전, 빌라다르 등에 참가하는 등 작품활동을 해왔으며, 동아공예대전 심사위원과 청주공예비엔날레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미협, 동우회, 한울회, 진명미술회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 윤형규(58응미) 본인상 2023년 1월 26일,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 한영옥(58회화) 부군상 2023년 1월 1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박임향(68조소) 부군상 2023년 1월 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 유기원(74회화) 모친상 2022년 12월 27일,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메일(snuarta@naver.com)이나 문자(010-5235-1946)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가 <http://snuarta.or.kr> 로 변경되었습니다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가로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세로		가로		세로		사이즈	가격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100*80	6,6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갤러리 탐방

S갤러리

한귀희(68회화)



편집부는 새해를 맞이해 미국 LA에서 서울대남가주총동창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S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한귀희 동문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S갤러리를 설립하게된 계기는?



저는 미국 Los Angeles, California에서 디자인, 개발 및 건축공사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는 회화과에서 서양화 전공을 하였으나 다시 건축을 공부하여 평생을 건축 디자인과 공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 APEC, 은 초창기에는 비즈니스건물과 주택의 설계 공사를 주로 했지만 최근 20년동안에는 저소득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를 개발하여 설계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같은 일을 하는 남편을 만났고 자녀들이 성장한 후엔 저소득층 노인과 가족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 것이 꿈이었고 약속이 있었어요. 고맙게도 아이들은 모두 잘 자라주어 꿈을 이루게 되었죠. 저는 지금도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몇년전부터 동창회에 참석하여 많은 미대 선후배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갤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선후배 작가들이 항상 작품전시할 공간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2018년 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2500sf(약 230m²)되는 갤러리를 준비하여 2년동안 상설전시장으로 시범 운영하는 동시에 신축하는 새 아파트건물에 갤러리를 준비했습니다.

S갤러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몇년전 저는 소외된 어린이들을 도우기 위해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S-Gallery는 Hollywood 지역에 위치한 서울대미대 동문작가들을 위한 상설 전시장으로 이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층 건물에 8000sf(750m²)의 5개 전시장과 25대 주차공간 그리고 리셉션을 할 수 있는 2000s(180m²)되는 잔디마당이 갖춰져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실내행사가 힘들었던 2020년 2월에는 이곳에서 서울대남가주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행사도 했습니다. 2020년 건물 준공 후 5월 S-Gallery에서 '제18회 서울대미대 동문잔'을 열었고 계속해서 10월에 '서울대미대 가을13인전'과 2021년 5월 '제19회 서울대미대 동문잔'을 개최했습니다. 또 저는 미술전시회와 음악회를 함께 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020년 신축건물의 준공 후 옆 건물이 있는 야외에 10000sf(930m²) 야외행사장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한달간 미대 전시회가 열리는 중 5월 14일에는 250여명이 모인 서울대남가주총동창회 총회가 열렸고 서울대음대 동문 음악인들의 야외연주회가 총회에 참석한 서울대 동문들의 환호속에 열렸습니다. 우리 동문 모두의 바람대로 미술과 음악이 한자리에 모인 서울대인들의 잔치였습

니다. 그 이후로 음대 동문들이 준비하는 소음악회가 매월 50여명의 동문들의 참석으로 열리고 있으며, 2023년 부터는 커뮤니티 행사로 준비해 지난 1월 24일에는 우리 노인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예약으로만 관람이 가능한 S-Gallery를 방문한 동문수는 남가주 각 단대의 모임후 단체 관람을 포함해 연간 1000여명이 넘었고, 작년에는 오세정 총장님과 서울대발전기금 재단이사장 채준 교수님을 위시한 여러 교수님들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옥션행사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모교발전기금과 서울대남가주총동창회를 후원했으며, 옥션에서 판매된 작품을 수록한 탁상달력을 올해로 7년째 제작하고 있습니다. LA의 중심부 Hollywood 5 acre(20250m²)의 대지에 S-Gallery, S-Garden, S-Village 20 Unit와 한자리에 있는 Swansea Senior아파트에는 60여명의 서울대 동문들과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S-Gallery와 S-Village에 마련된 커피숍은 Lock Box에 열쇠를 비치해 동문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들게 했으며, S-Garden과 S-Village 주위엔 나무들이 많고 10'가 넘는 파이크스나무 담장으로 아늑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S갤러리를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저는 2019년 서울대남가주총동창회 회장을 맡아 일하면서 함께 일한 임원 후배들과 동기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 동창회 임원으로 일하면 앞으로 10년간 같이 재미있게 놀게 해 준다고 약속했었어요. 모든 동창회가 그렇듯이 남가주에도 소위 말하는 관악후배동문들의 참석이 거의 없는 지경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저는 80학번 이후 03학번 후배까지 같이 일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팬데믹 때에도 빠짐없이 매달 한번씩 모임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접 요리해서 나눠 먹으면서 재미있게 지냅니다. 최근에는 후배들의 번개모임 초대로 더욱 풍성한 생활을 즐기는 중이니 주는 것 보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야외 행사장옆에 있는 S-Village아파트를 지난 여름 서울대 모교에서 선발되어 미국을 방문한 15명 '이음 장학생'들의 한달간의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4-50년 차이가 나는 선후배들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동문이라는 한울타리로 동질감을 느껴 이음 장학생들은 물론 저희 모두가 놀랐으며, 여러 대의 차를 동원해 한국에서 온 후배들과 여러 곳의 견학과 관광을 함께 하고 독립기념일 BBQ 파티와 불꽃놀이도 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동문이라는 이유로 도와주고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감명 깊었고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음 장학생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말했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문과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S-Gallery는 남가주서울대미대 동문뿐만 아니라 한국 및 각지에서 활동하는 젊은 동문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어 후배작가들에게 해외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S갤러리

주소 : 5151 Romaine St. LA, USA

전화 : +1 (805)300-7977

‘부활의 화가’ 인터뷰, 유튜브 채널 황부용(69음미)

황부용 동문이 지난 1월 16일 디자인정글과의 인터뷰로 33년간의 디자인 경험을 끝내고 화가로서 활동해온 13년의 소감을 밝히고 후배 디자이너들을 위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굵직한 업적을 쌓아온 황동문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존경하는 선배의 수술 쾌유를 위해 그린 그림을 통해 화가의 길을 밝히기 시작했다”며 준비 중인 전시 ‘메타모포시스’와 후배 디자이너들을 위해 직접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편 황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26세의 나이로



명지전문대 전임강사에 임용되어 국내 처음으로 편집디자인 과목을 신설했다. 이후 활자체 디자인 연구서 ‘황미디어’를 펴내고 88올림픽 조직위원회 디자인실장으로 활약하였다. 이후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브리지’를 설립, 운영했던 그는 중앙일보 신문디자인 전문위원과 조선일보 신문디자인 자문역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화가로서 왕성한 작업과 함께 최근 유튜브를 개설해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춘향영정 작가로 선정 김현철(79회화)

김현철 동문이 지난 1월 12일 남원시가 새로 교체하려는 춘향영정의 작가에 선정되었다. 지난 2020년 10월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춘향사당에 봉안했던 춘향영정이 친일 작가인 김은호 화백의 작품으로 밝혀지면서 남원문화원에서는 18세기 한국 여인의 모습으로 절개와 지조가 있는 고귀한 여인의 모습과 나이는 16~18세 사이의 흥상 채색본 작품을 가지고 새로운 춘향영정 작가를 선정하였다. 남원문화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춘향영정작가 선정위원회를 통해 동양화가이자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인 김동문을 새로운 춘향영정



제작 작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고 만해 한용운 초상부터 가현 최완수, 최근에는 고산 해원 대선사 초상까지 다수의 초상화 제작과 개인전 등 전시 이력을 갖고 있다. 남원문화원 관계자는 “새로 그릴 춘향영정의 작가 선정은 초상화 제작 이력이 있는 후보 작가 8명 중에서 3명의 지명 작가로 압축한 끝에 김 작가를 최종 선정하고 시에도 보고를 마쳤다”고 말했다.

철순 철학교사, 권이현 강사 등 총 6명의 강사진과 함께한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동양화 학사와 동대학원 동양화 석사를 졸업한 뒤 독일 슈트트가르트 국립대학 Aufbaustudium 회화 석사를 졸업하였다. 1995년 MBC 미술대전 장려상을, 1999년 독일 Kunst Haus Dresden이 주최한 COMTEC ART '99,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저서 2008년 ‘신하순 미술가족의 유럽여행’을 출간하였다. 경성대 예술대학 교수와 모교 부학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꿈키 예술융합캠프 개최 신하순(83동양)

신하순 동문이 지난 1월 30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충청북도 단양에 위치한 가곡초등학교에서 꿈키 예술융합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곡초 학생을 포함해 단양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일간 ‘영화인문학과 한국화로 만나는 <INSIDEOUT>’을 주제로 색채와 디자인, 한국수묵과 채색, 조형, 큐레이터와 전시기획에 대해 가르치는 캠프로 구성되었다. 한국화가이자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중인 신동문 외에도 임주미 전시기획자, 신수지 흥익대 강사, 홍은정 서양화가, 신



이 국제시장에 더 많이 선보여지기 위한 미술관과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며, 높은 문해력을 요구하는 작가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전공한 뒤 파리국립고등장식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계원예술대학교 아트계열 융합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2012) 총감독, 대구예술발전소 전시감독(2014), 문화역284 기획전시 ‘나의 잠’(2022) 예술감독, 국제갤러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고 미술비평과 연구, 큐레이팅을 하고 있다.

이 국제시장에 더 많이 선보여지기 위한 미술관과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며, 높은 문해력을 요구하는 작가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전공한 뒤 파리국립고등장식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계원예술대학교 아트계열 융합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2012) 총감독, 대구예술발전소 전시감독(2014), 문화역284 기획전시 ‘나의 잠’(2022) 예술감독, 국제갤러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고 미술비평과 연구, 큐레이팅을 하고 있다.

2023 한국미술계 분석 인터뷰 유진상(83서양)

유진상 동문이 지난해 12월 26일 뉴스핌과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2023년 한국 미술시장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미술평론가이자 기획자인 유동문은 2023년이 한국 미술계로선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말했다.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이 열리고 한국미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동시에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미술시장 역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문은 새로 등장한 MZ 콜렉터와 기존 중견 콜렉터 중 자금력과 수집이 체계적인 이들이 적지 않기에 급격한 후퇴는 예상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내 컨템포러리 작가들



는 공공기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연장 ‘극장용’ 운영을 맡아 각종 공연도 기획한다. 한편 장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에서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국제박물관협의회 부회장과 철박물관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박물관협의회 본부 집행위원과 국제박물관협의회 아태평양지역연합(ICOM-ASPAC) 위원장을 역임한 국내외 박물관 분야 전문가다.

이 국제시장에 더 많이 선보여지기 위한 미술관과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며, 높은 문해력을 요구하는 작가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전공한 뒤 파리국립고등장식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계원예술대학교 아트계열 융합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2012) 총감독, 대구예술발전소 전시감독(2014), 문화역284 기획전시 ‘나의 잠’(2022) 예술감독, 국제갤러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고 미술비평과 연구, 큐레이팅을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에 임명 장인경(83조소)

장인경 동문이 지난해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2월 28일까지다. 문체부는 이번 임명에 대해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국립박물관 활성화와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문화가치를 확산하



는 공공기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연장 ‘극장용’ 운영을 맡아 각종 공연도 기획한다. 한편 장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에서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국제박물관협의회 부회장과 철박물관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박물관협의회 본부 집행위원과 국제박물관협의회 아태평양지역연합(ICOM-ASPAC) 위원장을 역임한 국내외 박물관 분야 전문가다.

는 공공기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연장 ‘극장용’ 운영을 맡아 각종 공연도 기획한다. 한편 장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에서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국제박물관협의회 부회장과 철박물관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박물관협의회 본부 집행위원과 국제박물관협의회 아태평양지역연합(ICOM-ASPAC) 위원장을 역임한 국내외 박물관 분야 전문가다.

산문 ‘쓰는 직업’ 출간 곽아람(박사14미술경영)

곽아람 동문의 신작 산문 ‘쓰는 직업’이 지난해 12월 14일 마음산책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쓰는 직업’은 곽동문이 사회부 수습기자 시절 경찰서에서 먹고 자며 사건을 취재하던 경험부터 신문사 첫 여성 출판팀장이 되어 노벨문학상 특집을 위해 밤새도록 독서한 경험까지 다양하고 현실감 넘치는 직장 생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르한 파묵 등 유명 예술가를 인터뷰한 후일담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은 사회인으로서 겪었던 모멸의 순간들까지 면밀하게 보여준다. 한편 곽동문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미술경영협동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2016년 NYU IFA(The Institute of Fine Arts)에서 미술사학과 방문연구원으로 있었으며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뉴욕의 아트비즈니스 서티피컷 과정을 마쳤다. 독서 팟캐스트(곽아람의 독서알람)을 진행했고 ‘매 순간 흔들려도 매일 우아하게. 모멸에 품위로 응수하는 책읽기’, ‘결국 뉴요커는 되지 못했지만, ‘바람과 함께 스칼렛’, ‘미술출장’, ‘어릴적 그 책’, ‘모든 기다림의 순간, 나는 책을 읽는다. ‘그림이 그녀에게’ 등을 썼다.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미술경영협동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2016년 NYU IFA(The Institute of Fine Arts)에서 미술사학과 방문연구원으로 있었으며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뉴욕의 아트비즈니스 서티피컷 과정을 마쳤다. 독서 팟캐스트(곽아람의 독서알람)을 진행했고 ‘매 순간 흔들려도 매일 우아하게. 모멸에 품위로 응수하는 책읽기’, ‘결국 뉴요커는 되지 못했지만, ‘바람과 함께 스칼렛’, ‘미술출장’, ‘어릴적 그 책’, ‘모든 기다림의 순간, 나는 책을 읽는다. ‘그림이 그녀에게’ 등을 썼다.

한국화회 회장 취임 송근영(86동양)

송근영 동문이 한국화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서울대 동문들의 모임인 한국화회의 전신은 1960년 창립된 묵림회로서 권영우, 서세옥, 박노수, 안상철, 민경갑, 박세원, 장운상 동문 등에 의해 창립되어 한국 미술의 뿌리와 정체성을 모색하고 한국화의 영역을 확장하는 다양한 실험을 하였다. 한국화회는 1967년 송영방, 신영상, 이규선, 임송희, 장상의, 정탁영 등 21명 동문들에 의해 신문회관 화랑에서 첫 전시를 연 후 현재까지 한국화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전시를 56년간 지속해 오고 있다. 한편 송동문은 모교 동양학과 학사와 동대학원 동양학과 석사를 졸업한 뒤 한국화여성작가회 회장, 한국미술협회 한국화 1분과위원회 이사,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또한 송동문은 국내외 개인전 19회, 기획전, 단체전, 국제전 300여회를 여는 등 전통 사군자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해오며 사회의 모순과 병폐로부터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하는 사색의 작품들로 현대적 문인화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세진x알보우 콜라보제품 출시 배세진(99디자인)

배세진 동문이 뷰티브랜드 알보우(Rbow)와 함께 출시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인 '고도를 기다리며'가 지난 1월 12일 출시되었다. 배동문의 세라믹 오브제와 알보우의 디퓨저오일을 함께 판매하는 이 제품은 출시 당일 오후 전량 매진되었다.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 다시 도예작업을 시작한 배동문은 흙으로 만든 작은 판 조각을 이어 붙여 입체물을 만들거나 그림처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해왔으며, 그러한 작업으로 지난 2017년 제 1회 스페인 '로에베 재단 공예상'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배동문은 지난 2021년 코



즈메틱 브랜드 '탬버린즈'와 오브젝트 컬렉션 도자기 캔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배동문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작업 공방인 '필동 작업실'에서 작업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료 공예가들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업로드하는 SNS계정 '필동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배동문은 1월 초 타일 브랜드 '윤현상재'에서 열릴 그룹전을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영감과 작업환경을 위해 지난 1월 3일부터 오는 3월 21일까지 프랑스 파리 시테 레지던시에서 체류하며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파워 K-우먼 인터뷰 신수지(99서양)

신수지(필명 수신지) 동문은 주아시아경제에서 개최한 '2022 여성리더스포럼'에서 40인의 '파워 K-우먼'으로 선정되어 지난 1월 2일 주아시아경제지와 대담을 나누었다. 웹툰작가로 활동중인 신동문의 작품 '며느라기'는 2017년 '오늘의 우리 만화'에 선정됐다. 신동문은 '한국 만화가 협회장상'과 2018년 '올해의 성평등문화상' 부문 청강문화상,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문화체육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출판사 관계자의 권유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던 신동문은 2006년 26세의 나이로 난소암 투병을 하며 첫



만화이자 투병기 '3그램'을 독립출판하고 병원에 전시했다. 신동문은 이 시기 항상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꼭 부합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솔직하게 세상에 보여 보자"라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며느라기'에 이어 '곤', 현재 작업 중인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다. '며느라기'는 지난 2020년 시즌 1에 이어 2023년 1월 드라마 시즌 2를 오픈하였다.

그림책 '피트와 그림자' 출간 안리오(03시디)

안리오 동문의 그림책 '피트와 그림자'가 지난해 12월 30일 길벗어린이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번 그림책은 어린 아이가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AAU 스프링쇼 어린이책 부문 1위, AAU 스프링쇼 심사위원상, CQ49(Creative Quarterly) 일러스트에 입상하는 등 해외에서 먼저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주인공 피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존재에게서 공포를 느끼고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음에는 경계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엄마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고 스스로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림자



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결국에는 친구가 된다.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따스한 온기를 포착하는 안동문은 사랑스러운 피트의 순수한 감정 변화를 생생하게 그려 내고, 피트의 마음과 생각의 자라나는 모습을 담아 눈부신 아이의 성장을 응원한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뒤 영국 킹스턴 대학에서 시각디자인 석사를 졸업하였다. 이후 미국 Academy of Art University에서 Personal Enrichment Program을 수료하고 6회의 개인전을 거치며 활발히 작업해왔다.

HitBim

작품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포트폴리오 앱 제작하기

Hitbim 앱 빌더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동문님의 작품을 담은 개인용 앱을 만들고 앱스토어에 직접 출시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앱으로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관람객을 만나보세요.

추천코드 : 서울대동창회
앱 제작부터 출시까지 평생무료 (~ 2.28)



www.hitbim.com

새벽의 노래 최종태(54조소)



최종태 동문의 개인전 '새벽의 노래'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서울 용산구 가나아트 나인원에서 열렸다. 어린시절부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민주화 혁명 등 근현대사의 아픔을 겪은 최동문은 고난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 성찰하였고, 인간의 정신을 높은 곳으로 이끄는 사랑과 인내, 수용 등을 여성적인 것으로 보고 여인과 소녀상을 주요 모티프로 채택하여 작품관을 정립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1960년작 '새와 소녀'를 재제작해 최초로 공개했다. 60년만에 새롭게 탄생한 작품은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둡고 긴 고뇌와 성찰의 밤을 지나 마침내 새벽의 빛을 맞이한 최동문의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최동문은 모교 조소과 졸업후 70년대부터 28년간 모교 조소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김종영미술관 관장을 지냈으며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김소선초대전 김소선(63조소)



김소선 동문의 신년 기획 전시 '김소선초대전'이 지난 1월 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종로 광화문에 위치한 갤러리 내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김동문은 토끼 호랑이 등을 소재로 작품 '벌 서는 호랑이'처럼 동화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선보였다. 그간 김동문은 민화나 전통화, 식물화나 동물화에 자신의 상상을 담은 작품세계를 표현해왔다. 김동문은 자신이 만나는 여러 상황과 장면을 기반으로 마음에 울림을 주는 대상을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그린다. 이번 신년 기획 전시는 김동문의 작품들이 많은 관객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뒤 경원대학교 사회교육원 위촉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 미국 일리노이대학 초대전,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초대전, 에콰도르 키토 국립박물관 초대전, 노르웨이 베르겐 국립박물관 초대전 등 16여회의 개인전을 개최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Yun Hyong-keun 윤형근(47회화/1928-2007)

윤형근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데이비드 즈워너 파리에서 열린다. 오픈 당일에만 1000명 넘는 관람객이 찾으며 북새통을 이뤘다. 한편 지난해 연말 유명 아티스트 RM은 솔로앨범 '인디고'를 발표하면서 "출발점은 윤형근의 그림이었다"며 윤동문의 '청색 회화' 옆에 앉아있는 이미지를 공개해 윤동문의 작품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윤동문은 당시 군부정치에 대한 분노와 독자적 화업을 완성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족과 함께 파리로 떠났다. 당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됐던 서울



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미술의 중심지로서 전세계 화가들이 활발히 교류했던 파리의 생동한 분위기 속에서도 고유의 회화적 언어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고 작업에 매진했던 윤 화백의 열정은 관람객에게 송고한 내면의 울림을 선사한다. 윤동문은 모교 1회 입학생으로, 수화 김환기(1913~1974)의 제자이자 사위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리움, 도쿄도현대미술관, 홍콩 M+미술관,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유수의 미술 기관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방혜자화백 추모전 방혜자(56회화/193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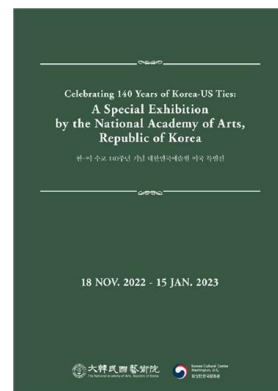
방혜자 화백의 추모전이 지난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바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인사미술제'의 일환으로 방혜자 작가 원화와 판화들이 전시되고 있다. 갤러리 바움 김혜식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선생님을 기리는 마음이 공유되기를 소망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한편 방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파리 국립미술학교와 파리 국립응용미술학교 등에서 벽화와 색유리화 수업을 받았다. 1961년 프랑스 파리로 떠난 국비 장학생 1호다. 한국적인 자연채색의 대가이자, 자신만의 세계를 구현해낸 추상 대작들



을 남겨 세계 화단에서 '빛의 구도자'로 불렸다. 나고 국제현대예술제에서 '聖미술상', 몽루주와 라 웨리에르 등 시에서 예술훈장 등을 서훈했다. 2010년 문화의 날에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서훈했고, 2012년에 한불 문화상,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의 '세계를 빛낸 여성 문화 예술인 상'을 받았다. 2018년 3월 프랑스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제1호로 등록한 샤르트르 대성당(Catedral de Chartres) 종교 참사회의실에 새로 설치되는 4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에 방혜자 화백의 작품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예술원 미국특별전 이종상(59회화) 외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유희영)이 개최하는 '한미수교 140주년기념 대한민국예술원 미국특별전'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미국 주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이종상(59회화) · 윤명로(56회화) · 유희영(58회화) · 정상화(53회화) · 최종태(54조소) · 엄태정(58조소) · 최의순(53조소) · 이신자(60회화) · 강찬균(57응미) · 전뢰진(49응미) 동문 등이 참여했으며 엄선한 작품 25점을 전시했다. 1954년 개원 이래 지난 1979년부터 우리 미술에 대



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매년 미술전을 개최해온 예술원은 한국현대미술의 원류를 해외에도 소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외 소재 한국문화원에서 특별전시회를 열어왔다. 올해 미국 주워싱턴한국문화원 특별전은 2017년 북경 주중한국문화원, 2018년 일본 주오사카한국문화원, 2019년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문화재단, 2021년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전시회를 잇는 다섯 번째 전시회이다.

Artful Partners 김차섭(59회화/1942-2022)/김명희(68회화)

故김차섭 동문과 부인 김명희 동문이 참여하는 단체전 'Artful Partners'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 The Anya and Andrew Shiva Gallery에서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열리고 있다. 한국 전위미술에 앞장섰던 김동문은 1969년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그룹)를 창립하는 등 제도권 미술에 반발하는 실험적인 작품활동을 했다. 김차섭 동문은 자연과 자신과의 관계를 살피며 인간 문명의 근원을 탐구하는 작업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2년 제14회 이종섭미술상과 2008년 제9회 이인성미술상 등을 받았다. 고인의 섬세한 판



화 작품은 당시 미국 화단의 눈길을 끌었으며 뉴욕현대미술관(MoMA) 등 주요 기관에 소장됐다. 김동문의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 뒤에는 강원도 춘천 오지인 내평리에 있는 국민학교 폐교를 구입하였고, 이후로 두 동문은 여름은 한국 내평리에서, 겨울에는 미국 소호에서 작업하는 생활을 계속해왔다. 내평리에 오면서 김명희 동문은 폐교에 남아있던 칠판에 어린이들을 그린 그림을 통해 독자적인 칠판화 세계를 만들어 나갈수 있었다.

11 회원동정-전시

빛과 소금의 예술 오의석(74조소)

오의석 동문의 암염 조각전 '빛과 소금의 예술'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다. 오동문은 그간 테라코타 기법으로 인물을 다루어오다가 2022년 암염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오동문의 암염작품들은 반투명한 재질 속에 따스한 빛을 품고있어 주변의 분위기와 마음을 모두 환기시켜준다. 오동문은 히말라야 산맥 광산에서 나오는 핑크솔트를 재료로 암염 중심부를 타공한 뒤 내부에 전구를 넣어 소금등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작품 '기도와 평화', '가족' 등 15점의 작품이 출품되



어있다. 이번 전시에 대한 내부 소개영상과 작가 인터뷰를 유튜브 채널(빛과 소금의 예술)에서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조소 학사와 동대학원 조소 석사학위를 수료하였다.

효성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미국 CALVIN대학 미술학과 교환교수, 연변과기대 건축학부 연구교수 등으로 재직하였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는 미술대 조소과 교수와 미술대 학장, 디자인 대학원장을 지냈다.

서용선: 회상, 소나무 서용선(75회화)

서용선 동문의 개인전 '서용선: 회상, 소나무'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지난 1월 28일까지 갤러리J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드로잉 2점을 포함한 2022년의 신작 소나무 풍경 그림 9점을 새로 발표한다. 서동문의 작업이 처음 널리 알려진 것은 40여년 전 일련의 '소나무' 회화 연작으로, 오늘날 서용선 회화의 초석이자 출발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갤러리J에서 2018년에 자화상, 그 이듬해에 콜라주 및 오브제 입체 작업, 그리고 2020년에 약 1년간의 빈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2021년에 《서용선의 생각



가루개 프로젝트》전시로 이어지고 책으로 출간이 되었다. 지금까지 서동문은 자신의 작업방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였고, 이번 전시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작업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장이었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제 1회, 2회 중앙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했다. 독일 함부르크 국제미술아카데미 초대교수와 모교 서양화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Lesser 더 적게 박미화(75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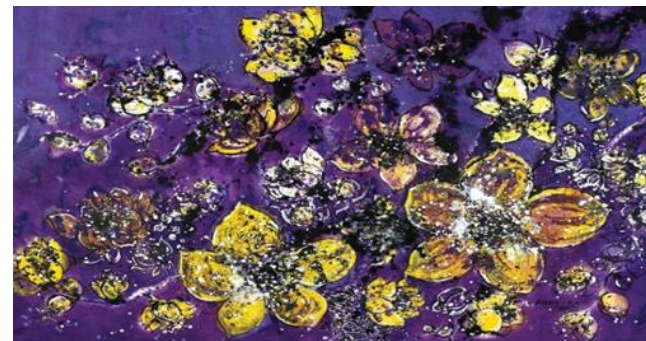
박미화 동문이 개인전 'Lesser 더 적게'를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아트스페이스3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박동문의 21번째 개인전이자, 2020년 이후 첫 개인전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고심해온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사유가 보다 방법론적으로 드러난다. '더 적게'라는 제목은 최소한의 재료와 부피를 사용해 지구상에 더 적게 자취를 남기겠다는 이번 전시의 취지를 의미한다. 또한 이번 전시 전체가 추모와 위무가 펼쳐지는 예술적 제단으로서, 부조리한 권력과 제도, 무지와 이기심, 전쟁 등 인간에 의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한다. 그리하여 보다 평화롭고 따듯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고 공유해 보자고 권한다. 관람객들은 "이태원 참사의 애도 속에 작품, 전시가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템플대학교 타일러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따뜻한 휴머니즘을 담은 도자와 회화, 설치 작업으로 지난 2019년 제 4회 박수근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정선 평화의 소녀상 건립 작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Flower No Flower-기쁨의 노래 안영나(80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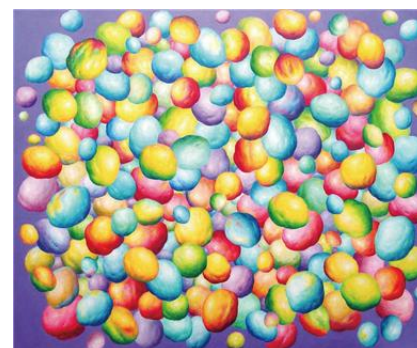
안영나 동문이 지난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라메르에서 개인전 'Flower No Flower-기쁨의 노래'를 개최하였다. 안동문은 이전에도 'Flower No Flower'라는 제목의 전시를 개최하였다. 'Flower No Flower-꽃과 인생' 등 이전부터 꽃을 소재로 한 연작전을 개최해온 안동문은 꽃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희로애락과 춘하추동을 살아가는 심성 등 일상을 담는다. 그의 꽃에는 액션페인팅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필법으로 생명력과 에너지가 담겨있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0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수상하였으며, 1999년에는 뉴욕 폴록-크레스너재단상을 수상하였다. 안동문은 25회가 넘는 개인전을 열고 다수의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여하였으며, 조지메이슨대학의 교환교수로 재직하였고 서원대학교에서는 30년간 교수로 재직하였다.

Pulsation 이영훈(81회화)

이영훈 동문의 개인전 'Pulsation(맥동)' 전(展)이 지난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에 위치한 베카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6일 오프닝과 함께 시작된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작품 16여점을 선보였다. 이동문은 작품 노트에서 "작품은 인간의 존재 근거에 대해 고찰하게 한다"며 "작품 감상자가 공간에 대한 경험을 넓혀 삶에 대한 성찰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 동대학원(미술이론 전공)을 졸업



한 뒤 미국 뉴욕 Pratt Institute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고, 이후 귀국하여 모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개인전 16회 외에도 다수의 단체 전시에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저서 '뉴미디어 아트와 시간을 떠날 시간'에 대한 기존의 표현을 뛰어넘는 미술표현체계를 위해 엄정한 시간개념을 탐색하고 정립하였다.

이상한 나라의 아홉 용 이수경(83회화)

이수경 동문의 개인전 '이상한 나라의 아홉 용'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서울 성동구 더페이지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2017 베네치아비엔날레 본전시에서 출품됐던 '이상한 나라의 아홉 용'이 소개된다. 이동문이 국내외 주목을 받은 계기가 된 작품, '번역된 도자기 시리즈'의 하나로 이번 전시의 이름이자 대표작이다. 이동문은 용 아버지에게서 용이 아닌 다른 짐승으로 태어난 아홉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중국 전설 '용생구자'에서 영감을 받아 도자 파편이라는 무용한 것들을 이어 붙이고, 깨



진 틈을 금으로 메우면, 일종의 쓰레기들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학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2006 광주비엔날레에서 '번역된 도자기' 시리즈로 주목받은 이동문은 이후 영국 리버풀비엔날레, 마루가메 현대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베네치아비엔날레, 나폴리 도나레지나현대미술관 전세계 미술관 및 아트페어에 소개되었다. 2021년에는 중국 베이징 메종 발렌티노의 브랜드 재해석 프로젝트 전시에서 소개되었다.

그림을 노래하다 원종신(86주소)

원종신 동문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용인포은아트갤러리에서 열린 세계디지털아트페어 '그림을 노래하다'의 콜라보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는 원동문 외에도 권태원, 소프라노 김항경, 메조소프라노 변지현, 피아니스트 한미연이 함께 했다. 개막일인 28일에는 원동문이 디렉터로서 그림을 해설하고, 그림과 연상되는 노래가 연주되는 방식의 아트리노 살롱 콘서트가 진행돼 미술과 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예술가와 관객이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ABS(에이비에스)갤러리 관계자는 "5인의 정상급 미술가와 음악가



들이 꾸미는 콜라보 무대를 통해 공간예술인 미술과 시간예술인 음악이 예술적 영감이라는 공통된 감성을 매개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말했다. 송은문화재단과 소마 미술관 아카이브 작가로 선정된 원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이수하였으며, 경기대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회화와 사진, 컴퓨터 세 가지 영역의 접합과 개입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재호(90동양)

정재호 동문의 개인전 '나는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이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초이앤초이갤러리에서 열린다. 정동문은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변영과 발전, 즉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도시의 풍경 이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붉은 십자가로 뒤덮인 서울의 야경, 쇠락한 인천 차이나타운의 풍경 등 1960~70년대의 시범아파트단지 등을 통해 근대 도시와 건축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켜왔다. 2020년 쾰른에서 열린 'Moment



to Monument'와 2022년 베를린에서 열린 'Berlin meets Seoul' 및 서울에서 개최된 'FLOWER'에 이어 열린 이번 전시에서 정동문은 수년간 을지로를 배경으로 작업해온 신작들을 전시한다. 정동문은 20회에 가까운 단체전과 8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강석호: 3분의 행복 강석호(91주소/1971-2011)

강석호 동문의 첫 회고전 '강석호: 3분의 행복'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린다. 하루의 여정을 담은 강동문의 수필 제목 '3분의 행복'에서 제목을 따온 이번 전시는 그의 주요 회화 연작과 함께 그가 모았던 모더니즘 가구, 수집품을 함께 전시해 일상 속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예술을 실천했던 강동문을 떠올리게 한다. 전시장 마지막 공간은 '모두를 위한 목소리'라는 사운드 설치작업을 통해서 작가를 기억하는 지인 25명이 구술하는 인터뷰가 3개의 채널로 재구성됐



다. 동료들과 교류하던 자전거, 캠핑, 음악감상 등 다양한 취미와, 작가의 작업실과 집, 학교 연구실 사진 이미지가 가득한 전시실은 강동문의 부재를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한편 강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독일 쿤스트 아카데미 뒤셀도르프 서양화과 석사를 마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2000년 UBS 아트어워드와 2004년 석남미술상을 수상하였다.

녹색 불을 다루는 법 최나무(97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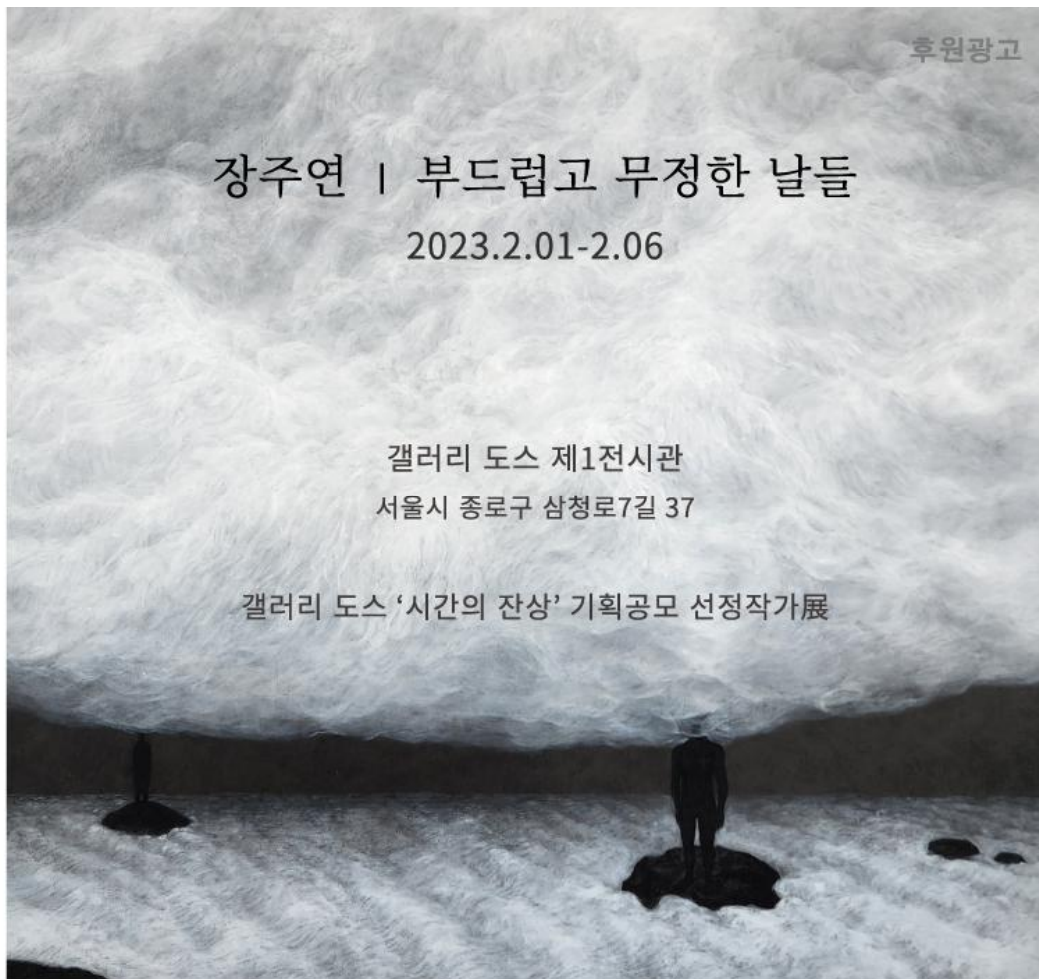
최나무 동문의 전시회 '녹색 불을 다루는 법'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담에서 열렸다. 전시 제목에서 힌트를 받을 수 있듯, 이번 전시는 심드렁하고 힘들어진 현실을 살던 중 식물을 키우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되는 경험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때로는 식물의 줄기 속에 작가 자신이 정령이 돼 숨어 있기도 하다. 최동문은 글을 통해 "식물의 형태와 색, 그 안쪽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직면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의 모양이다. 식물의 힘, 그것은



식물을 통해 나 자신을 관찰하고 키워내게 하는 힘이다. 식물을 키우면서 보는 것이 스스로의 마음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마음을 보면서 식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도 얻으면서 새로운 작업에 몰입할 수 있다"며 "식명을 하듯, 나의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쉬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적어도 그림 속에선 뭐든 할 수 있으니까"라고 했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동 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했으며 지금은 도쿄에서 거주하면서 활발히 작업 중이다.



한효니 초대전
Shining Hope
 2023. 2. 8 - 20
 11am-06pm 일요일 휴관
 갤러리B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5
 기획 | 갤러리B 후원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13 회원동정-전시

본질의 태도 손문일(00동양)

손문일 동문의 개인전 '본질의 태도'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페이스사직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손동문의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손동문은 그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감각을 배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대상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덧씌워진 것들의 해방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대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질감을 그대로 차용함으로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보여주게 되었다. 작가는 삶이란 세상을 받아들이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다가온다고 말한다. 한편 손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 GONG 아트 레지던스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북경 중앙미술학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했다. 이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동국대 미술학과와 울산대 예술대학 미술학부에서 외래강사로 재직하였다.

연적 硯滴, 물들다 허승희(03동양)

허승희 동문의 개인전 '연적, 물들다'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7일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모리함전시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허동문은 동양화의 재료들로 당시 '연적'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였다. 연적은 벼루에 먹을 갈 때 물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안된 작은 그릇으로, 조선시대 사랑방의 문방구들 중에서 특히 학문과 예술의 출발점인 동시에 주인의 안목과 격을 보여주는 선비들의 필수 소장품이자 또 한편으로 뜻이 맞는 벗들이



주고받는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 한편 허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서울대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학사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동양화과에서 공부하였다. 이후 10여회의 단체전과 3회의 개인전을 열어 작품활동을 지속하면서 규장각, 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 연구 제작에 오랜시간 참여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 및 서화 보존을 책임지고 있다.

계란 한 판, 결혼할 나이 김현정(08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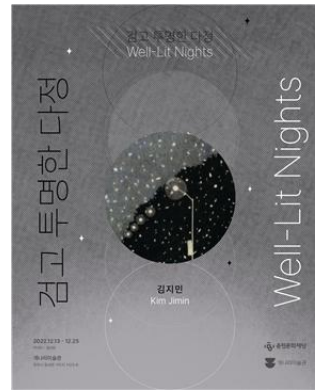
김현정 동문의 특별전 '계란 한 판, 결혼할 나이'가 지난 1월 10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삼례문화예술촌 제1전시관에서 열린다. 김동문은 한복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 여성을 주제로 현대인의 관심을 트렌디하고 개성 있게 표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다. 호남지역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동문의 대표작인 결혼 시리즈, 내송시리즈 등 작품 40여점을 만나 볼 수 있다. 작품 전시와 함께 예술촌은 한복과 연결된 이번 전시회 특징을 담아 작품 드로잉, 한복 입어보기,



전통 머리 장식, 사탕 만들기 등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며 전시 기간 중 김동문과의 만남, 강연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동양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동양화 석사와 박사학위를 수료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최연소 작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베를린 주독일한국문화원, 북경 비엔날레, 프랑스 에콜 서울 파리 갤러리, 예술의 전당 등 세계적 무대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검고 투명한 다정 김지민(08서양)

김지민 동문의 개인전 '검고 투명한 다정'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 위치한 강원개나리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개나리미술관의 2022 신진작가 공모 선정작가전 목적으로 기획됐다. 미술관은 올해 초 선정작가전 공모에 접수한 신청자 50여명 중 선정위원회를 통해 구상회화, 추상화, 입체 세 분야 작가를 각각 선정했다. 김동문은 훑날리는 눈송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꽃잎, 도로를 밝히는 가로등의 불빛 등 일상에서 쉽게 흩어지며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왔으며, 이번 전



시에서는 겨울밤 눈 오는 풍경을 배경으로 한 그림 20여점을 선보였다. 김동문의 작품에 투영된 도로는 소실점을 향하며 목표물이 한없이 멀리 있는 것 같은 무력함을 주지만 주위 가로등 불빛이 길잡이 역할을 하며 작은 위로를 전한다. 한편 구상회화 작가로 선정된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 서양화 석사를 졸업하고 공간연출 등에서 4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김동문의 작품은 서울시청, 정부미술은행 등에 소장되어 있다.

Salt Painting 이계진(15동양)

이계진 동문의 개인전 'Salt Painting'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1월 29일까지 서울 성북동 연우재에서 열렸다. 2022년 경기미술품활성화사업(아트경기)의 선정작가인 이동문은 옛 문인화에서 먹을 갖고 논다는 뜻의 '묵희(墨戲)'에서 영감을 받아 소금과 먹을 활용한 기법으로 다양한 현대인의 삶을 표현했다. 그림에 점경인물들이 진한 먹으로 작게 묘사되어있는데 이는 이동문이 바라보는 다양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 전시의 '소금산수' 시리즈는 장지 위에 크게 먹, 아교, 소금을 뿌리는 우연적 기법을 활용한 뒤 이



를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동문은 "떠도는 생각들을 잠시 뒤로한 채 눈을 감고 붓을 들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며 궁극적으로 그림을 통해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후 현재 뉴욕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간 5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 및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불안한 선 김영현(16서양) 김아주(17조소)

김영현 동문과 김아주 동문의 2인전 '불안한 선'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ABMS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 김아주 동문은 감상자가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동선을 가진 4면의 좌대를 직접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김아주 동문의 작업은 보는 이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고 여기저기로 관객들을 이동시킨다. 김아주 동문의 작업은 읽을 수 없는 제목과 철저하게 계획된 듯한 그의 공간에서 강한 방어기제가 느껴진다. 그 속에서 보이는 강한 결핍은 김영현 동문의 작업에서 느껴지는 것

과 유사하다. 김영현 동문은 얇은 천에 빼곡히 담은 그림을 고정하지 않은 채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해 조금 더 공격적이게 환상을 부각시키기도 혹은 그 착각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연약한 천에서 어딘가에 안전하게 정착하기를 바라는 듯한 결핍이 느껴진다. 이렇듯 방어의 힘이 강한 두 작업이 어우러지면서 그 결핍이 비로소 진짜 힘을 가지게 된다. 한편 김영현 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과를, 김아주 동문은 조소과와 금속공예과를 복수전공으로 졸업했다.



2월의 전시



은빛 날개의 꿈과 기쁨

엄태정(58조소)
22.8.24 - 23.2.26
아라리오뮤지엄



별을 그리는 마음

이만익(57회화/1938-2012)
22.9.2 - 23.2.5
소마미술관



임옥상 : 여기, 일어서는 땅

임옥상(68회화)
22.10.21 - 23.3.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Artful Partners

김차섭(59회)/김명희(68회)
22.12.7 - 23.3.10
the Anya and Andrew Shiva Gallery



물들다

신수진(91서양)
22.12.14 - 23.2.4
메타갤러리루나



이상한 나라의 아홉 용

이수경(83회화)
22.12.15 - 23.2.10
더페이지갤러리



빛과 소금의 예술

오익석(74조소)
22.12.15 - 23.2.28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강석호: 3분의 행복

강석호(91조소)
22.12.15 - 3.19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Fe-공중산수

김종구(84조소)
22.12.17 - 23.2.27
스텔라갤러리



불가공약의 회화풍경

조명식(82회화)
1.1 - 3.30
SEA of SPACE GALLERY



꽃이 피다

한수정(86서양)
1.5-2.26
세브란스 아트 스페이스



Yun Hyong-keun

윤형근(47회화/1928-2007)
1.7-2.23
데이비드 즈워너



계란 한 판, 결혼할 나이

김현정(08동양)
1.10-4.8
삼레문화예술촌



땅을 보고 걷는 사람

이경하(00서양)
1.11 - 2.12
갤러리뫼



나는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재호(90동양)
1.13 - 2.25
초이앤초이 갤러리



Into the Candyverse

노준(89조소)
1.26-2.25
페이토갤러리



부드럽고 무정한 날들

장주연(12동양)
2.1 - 2.6
갤러리 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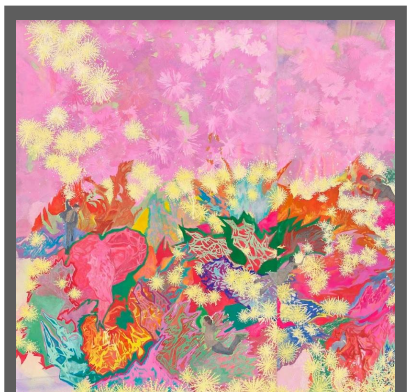
메타모포시스

황부용(69응미)
2.3 - 2.15
갤러리내일



분화

송영수(50조소)외 3인
2.3-3.26
김종영미술관 신관



한효니 초대전

한현정(08동양)
2.8 - 2.20
갤러리B